

바닷가 절을 찾아서

피서(避暑), 매년 이맘 때 즈음 우리는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길을 나선다. 하지만 길을 나선다고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피한다는 말보다는 잊기 위해 떠난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더위를 잊기 위한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도 있고, 시원한 계곡이 있는 깊은 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찾아가는 바다와 산, 좀 더 특별한 바다와 산은 없을까. 절이 있는 바다와 산은 어떨까. 뜨거운 피아별도 시원히 지나가는 풍경소리, 무거운 바람 가볍게 잡재우는 목탁소리, 법당 치마가 드리운 천 년짜리 그늘. 모든 것 일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물가의 사찰과 산속의 사찰을 소개한다. 특히 섬 속에 또 다른 섬처럼 서있는 절과 쉽지 않은 길 끝에 조용히 서있는 절은 더위를 잊기에 더할 나위 없는 피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원 기자 wanhillo@hyunbul.com

바닷가의 계가 오솔길을 걷고

보길도 남은사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남은사(사진)가 있는 보길도는 해남군의 땅끝 선착장이나 완도군 화흥포항에서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섬이다. 완도에서 서남쪽으로 23.3km 떨어져 있고, 노화도 만서쪽 1.1km 지점에 있다. 고산 윤선도(1587~1671)의 유배지이기도 했던 보길도는 동백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림이 울창하고 해변에는 검은 조약돌이 깔려 있다. 동편의 예송리 해변은 주변으로 아름답디 노송이 울창하고 해안으로 천연기념물 제40호인 상목수림이 늘어서 있다. 해변 앞에는 당사도, 기선, 절매섬 여좌도 등 아름다운 섬들이 떠 있고, 날씨가 맑은 날엔 제주도까지 보인다.

남은사 가는 오솔길에는 빼꾸기 소리가 많다. 오솔길을 걷다보면 조그만 계들이 바스락거리며 숲속을 오간다. 숲에 계들이 산다. 보통의 숲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절 입구까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적석담이 늘어서 있다. 중마산 정상에 깃들어 있는 작은 암자 남은사. 절의 내력이다. 오래 전 이곳 정자리에 사는 갑부의 처가 소생이 없어 절을 짓



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여생을 보냈다. 처음 이름은 북암사였다. 그 이름은 절의 동쪽에 북 모양의 큰 바위에서 유래했다. 그 북바위가 울리면 바다 건너 맞바래기 섬에서 상피(相避)가 났었다. 수처스롭게 생각한 그곳 주민들이 밤에 물레 배를 저어와 북바위의 제일 윗단을 굴러 버렸다. 그 뒤로는 북바위가 울리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굴러버린 바위는 알아볼 길이 없었지만 푸른 이끼 둘러친 큰 바위를 위에 앉으면 눈앞에 푸른 바다와 섬들이 다가온다.

완도 신흥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를 군내리 168-1

신흥사는 남망산(南望山)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1932년 김성렬 스님이 불로사(不老寺)로 창건했다. 前 백양사 방장 수산 지종 큰스님 과 박영희 스님이 주석했다.

신흥사 가람은 북향이며, 아름다운 완도의 전망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당우로는 대웅전과 약사전, 불전, 하심당(교육관), 삼성각이 있다. 장정은 남망산(南望山)의 중턱에 있기 때문에 완도읍의 전망과 야경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저 멀리 신지, 대둔산의 경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진도 쌍계사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99-30

진도 쌍계사는 진도읍에서 동남방으로 왕무덤재를 넘어 7km 쯤 지나면 사방으로 첩철산의 산맥이 에워싸고 있는 운림산방로에 자리잡고 있다.

857년(신라 문성왕19)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절 양편으로 계곡이 흐른다 하여 쌍계사라 불렀다. 1648년(인조 26) 의웅 스님이 중건했다. 대웅전 좌우로 시왕전과 원통전이 자리하고, 시왕전 뒤편에 산신각이 있다. 진산이라 불리며 천연기념물 107호 쌍계사천년상목수림대가 있는 침향산 자락 중심부에 자리한 쌍계사는 인근에 소치 허련 선생의 운림산방과기념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섬 속 현존 最古 도량

강화도 전등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 635

강화도는 섬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이다. 선사 시대의 고인돌 유적부터 단군 왕검의 얼이 담긴 마니산, 고려 때의 대몽항쟁과 팔만대장경 조성, 서양 세력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였던 '병인양요'에 이르기까지 강화도의 역사는 곧 한민족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역사와 문화의 섬이다.

전등사는 현존하는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도량으로 역사와 자긍심을 간직한 사찰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삼랑성은 단군이 세 아들(三郎)을 시켜 쌓았던 고대의 토성이었고, 삼국시대에는 토성 자리에 석성을 쌓아 올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삼랑성 안에 자리잡은 전등사는 세 발 달린 솔을 거꾸로 걸어놓은 모양을 가진 정족산(鼎足山)과 더불어 강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유적이다.

전등사는 381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

된 것이 서기 372년이므로 지금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성문사, 이불란사(375년 창건)에 이어 전등사는 한국 불교 전래 초기에 세워진 이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도량이다. 당시 아도 화상은 강화도를 거쳐 신라 땅에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도 화상이 강화도에 머물고 있을 때 지금의 전등사 자리에 절을 지었으니 그때의 이름은 '진종사(眞宗寺)'였다. 그 후 고려 제27, 28, 30대의 충숙왕(忠肅王)·충혜왕(忠惠王)·충정왕(忠定王) 때에 수축하였고, 1625년(인조 3)과 1906년에도 중수하였으며, 또 일제강점기에도 두 차례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전등사라는 이름은 충렬왕(忠烈王:재위 1274~1308)의 비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이 절에 옥등(玉燈)을 시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때 정화궁주는 승려 인기(印奇)에게 <대장경>을 인간(印刊), 이 절에 봉안하도록 했다. 이 절에는 보물 제178호인 전등사 대웅전(大雄殿), 보물 제179호인 전등사 약사전(藥師殿), 보물 제393호인 전등사 범종(梵鐘)이 있다. 또 대웅전에는 1544년(중종 39) 정수사(淨水寺)에서 개판(改版)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목판 104장이 보관되어 있다.



현존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등사

석모도 보문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우리 629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인 635년에 회정대사가 열었다. 여러 창건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창건설이다. 금강산 보덕굴에서 수행하고 있던 회정 스님이 이곳으로 옮겨와 절을 세우고 보니 산세가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서천 사자국의 보타락가산과 흡사했다. 산 이름을 나가산이라 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 없이 나누시는 관세음보살 원력의 광대무변함을 의미하는 '보문'을 도량의 이름으로 썼다.

보문사는 관세음보살이 늘 중생을 기다리며 열여놓은 '문'이다. 문을 지나 가파른 길을 오르면 33관음보살사리탑과 오백나한이 힘들었던 여정을 위로한다. 숨을 돌리고 눈을 고쳐 뜨면 와불을 모신 와불전, 나한전 석실, 중심 정각인 극락보전, 넉넉한 마당이 낙가산 기슭을 장식하고 있다.

보문사의 백미는 눈썹바위 아래 모신 마애관음 좌상이다. 서쪽 바다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마애관음좌상을 보기 위해선 1km 정도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 계단이 재미있다. 처음 12계단을 올라가면 좌우에 석등이 하나씩 있고, 여기에서 다시 108계단을 올라간 곳에 '관음성전계단불사공덕비'가 있다. 다시 108계단을 오르면 한 쌍의 석등이 있고, 다시 118계단을 계단을 올라가면 반야유성이 있다. 거기서 48계단을 더 올라가면 마애관음좌상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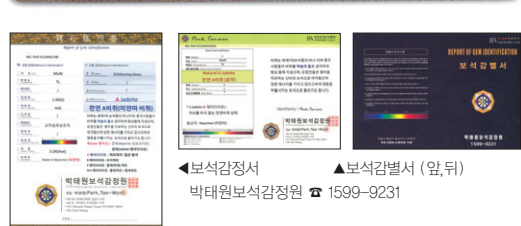
보문사 전경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향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민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100% 순수 자연 그대로 백련사 국내산 산삼

장長 뇌腦 參蔘

건강이 최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불자님들에게 공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 백련사'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장뇌산삼을 최저가격으로 현물삼에서 공급해 드립니다. 한뿌리 한뿌리에 사찰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각종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련사에 직접 방문 하셔서 산삼을 채취 할 수도 있습니다.

7~8년근 3뿌리 15만원 → 특가 12만원 / 7~8년근 5뿌리 25만원 → 특가 19만원

장뇌삼의 효능

- ▶ 항암효과: 장뇌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 피로 회복: 장뇌삼에 함유된 말뚝 성분은 간기능이나 심기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 ▶ 면역력 증강: 만성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습니다.
- ▶ 노화방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부노화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 당뇨예방: 장뇌삼에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뇌삼 먹는방법

- ▶ 생으로 장뇌삼을 먹는방법: 장뇌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뇌두를 제거한 후 아침 공복이나 취침하기 전에 30분이상 오래썩어서 복용하세요. 장뇌삼을 먹기 전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밥을 지어 먹는방법: 장뇌삼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기력이 없는 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 ▶ 한약으로 먹는방법: 장뇌삼 1주당 1리터의 물을 붓고서 썬볼로 달이다가 끓기시작하면 중불로 반으로 줄인다음 아침저녁으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 ▶ 술로 먹는방법: 유리병에 장뇌삼과 술을 부어 밀봉시킨 다음 숙성시켜서 소주잔에 한잔씩 마시면 됩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산속의 절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고찰들은 대부분 산 속에 자리하고 있다. 굳이 제목에 '산 속'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공간적인 깊이가 아닌 도량이 간직한 깊이를 말하는 것으로, 잊기 위해 나선 길 위에서 좀 더 깊은 길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도량이 간직한 이야기와 흔적들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도량들을 묶었다. 문장 하나로 한 시대를 가르치고 이끌었던 지성의 흔적, '무애'의 이름으로 남은 선지식의 작은 방, 한국불교의 큰 이름들이 서성거렸던 마당, 피안으로 가고 싶은 중생의 마지막 거처, 명작이 일태된 작가의 서재.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동안 잊지 못할 '피서'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반야용선을 기다리는 용선대에서 바라본 관룡사 전경

한 시대의 지성이 걸었던 길을 따라

조계산 불일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명리 43

암자를 찾아가는 오솔길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우선 한 시대의 지성으로 불린 선지식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암자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육신으로 머물렀고, 생사를 놓은 후에도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이 오랜 세월 걸었던 길은 2km 남짓으로 편백나무와 대나무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다. 다른 녹색과는 또 다른 녹색의 대나무숲이 뜨거운 태양과 무거운 바람을 막아준다.

순천 송광사(옛 이름 수선사)의 산내암자로, 송광사의 제7세 국사인 고려시대 승려 자정국사(慈靜國師, 법명 일인)가 창건하였다. 본래 이름은 자정암(慈靜庵)이었으나 1975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법정(法頂) 스님이 중건하면서 불일암(佛日庵)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1708년(숙종 34) 시습·이징 스님이 중수하였고, 1765년 탁명 스님이 공부를 건립하였으나 공부는 1929년 해체되었다. 1866년(고종 3) 승허 스님이 철상각을 건립하고, 1891년 월하·

계암·용선 스님이 정문을 중수하였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중수를 거듭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퇴락하였고, 1975년 법정 스님이 중건하였다. 경내에는 법정 스님이 기거한 요사 2동과 찾아오는 이들에게 대접한 감로수의 수각이 있으며, 경내 북동쪽에 자정국사 부도가 있다.

불일암에 들어서면 작은 텃밭이 보이고, 돌계단 위로 법당이 산을 짚고 있다. 법정 스님이 생전에 손수 심었던 후박나무 한 그루가 법당 앞에 서있는데, 법정 스님은 다비 후 그 나무 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법당 모서리에는 스님이 쓰시던 의자가 놓여 있다. 작지만 큰 암자다.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불일암

'경허'의 흔적 간직한...

연암산 전장암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

연등 몇 개 걸린 인법당 하나, 작은 선방 하나. 몇 걸음 안 되는 마당 하나. 허리 굽은 석탑 하나. 산신각 하나. 연암산 전장암이다. 633년(백제 무왕 3)에 담화 선사가 세웠다. 전장암은 '경허'의 도량이고, '경허'가 전장암의 역사다. 전장암은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량이지만 그 천년을 채워줄 만한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다. '경허'의 흔적만이 그 전장암의 역사를 채우고 있다.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견성후 보림처로 삼은 곳이 전장암이다. 당시



경허 스님의 보림처 전장암

스님이 1년 3개월 동안 장좌불와를 했던 방이 살아 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이다. 문을 닫고 앉으면 시간도 탄다. 아니 시간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스님이 왜 이토록 작은 방을 택했는지 알 것도 같았다. '나' 외엔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다. 벽에는 스님의 진영이 걸려 있다. 익숙한 스님의 진영이었지만 스님의 방에서 보는 진영은 멈춘 시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스님은 이 작은 방에서 모든 시비(是非)를 끊었고, 염정(染淨)을 끊었고, 생사(生死)를 끊었고, 승속(僧俗)을 끊었다. 결코 작은 방이 아니다. 경허 스님 이후 수월·혜월·만공으로 이어진 계보는 한국불교를 풍성하게 했다. 그토록 의미 있는 불사와 역사가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됐다. 더위를 잊기에 또한 그만인 도량이 아닐 수 없다.

633년(백제 무왕 34) 담화대사가 제자와 함께 수도하기 위해 창건했다. 그 뒤 조선시대 말기에 선종을 중흥한 경허가 수도하면서 수많은 일화를 남겼고, 후학들을 지도했다. 당대의 고승 만공 스님이 출가 후 경허선사의 제자가 되어 스승을 모신 곳이다. 경허와 만공의 수도처라는 점에서 많은 수도승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화왕산 관룡사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2

숲 속에 폭 파묻혀 있는 관룡사는 일주문 대신 서있는 작은 석문(石門)이 도량을 열어준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용선대(龍船臺)가 있다. 용선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 출발하는 곳이다. 반야용선은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중생들을 건네주는 반야바라밀의 배(船)를 말한다. 용선대에는 보물 제295호인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다. 용선대에 올라 반야용선을 기다리던 더위는 한 순간에 잊힐 것이다.

철쭉과 역사로 유명한 화왕산 병풍바위 아래에 위치한 관룡사는 신라 8대 사찰의 하나로 내물왕 39년(394년)에 창건되었다. 원효대사가 중국 승려 1,000여 명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설법한 곳으로 유명하다. 창건 당시 화왕산에 자리하는 연못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사찰의 이름을 가져왔다. 석문을 지나 천왕문과 원음각이 산세를 따라 부드럽게 이어진다. 보물인 대웅전과 약사전을 비롯하여 석조석가여래좌상 등 5점의 지정 유물이 있어 사찰의 가치가 더욱 높다. 특히 산 중턱 용선대 위에 올라앉아 있는 석조석가여래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불상이 아닐까 싶다.

팔공산 운부암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55

소나무 숲을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면 연못 속에서 도량이 드러난다. 바람에 이는 물결 속에 법당이 있고, 파란 하늘을 품은 연못 위에는 뚜렷하고 오래된 눈동자의 달마상이 서 있다. 머리 숙여 보화루 돌계단을 오르면 운부암이다.

은해사의 산내 암자 중 하나로, 유서 깊은 참선도량이다. 711년(신라 성덕왕 10)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을 세울 때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운부암(雲浮庵)이라는 이름이 붙

었다 한다. 고려시대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이후 중건하여 관음기도 도량으로 전승되어 왔다. 1860년(철종 11) 다시 화재로 소실되자 용허 스님과 침운 스님이 중건했고, 1900년에 보화루(寶華樓)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법당 원통전(圓通殿)을 중심으로 그 왼쪽에 선방인 운부암(雲浮蘭若), 오른쪽에 요사채 우의당(禹義堂)이 있고, 그 앞으로 보화루가 배치되어 있다. 산령각은 원통전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1862년(철종 13)에 지은 '운부암중건기'의 기록을 통해 관음전인 원통전은 1862년 중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다.

마당에 들어서면 오래된 편액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운부난야(雲浮蘭若)', 문자로는 읽어낼 수 없는 공간이다. 운부암 선방의 당호다. 난야는 아란야(阿蘭若)의 준말로 적정처(寂靜處), 무쟁처(無爭處)를 뜻하며, 수행하기 적합한 곳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이곳 운부암은 많은 선지식이 거쳐 갔다. 경허, 만공 스님으로부터 의상, 운봉, 경봉, 향곡, 한암, 팔봉, 청담, 성철 스님 등 많은 선지식들이 이곳에서 정진했다. 평생 도반이 되는 성철(性徹·1912~1993) 스님과 향곡(香谷·1912~1978) 스님도 이곳에서 만났다.

이명산 다솔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503년에 연기 스님이 세운 절이다. 전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에 들어서면 어느새 깊은 숲의 호흡이 다가오고 간간히 들려오는 산세 소리는 숲의 깊이를 전해준다. 숲길의 끝에 서면 적멸보궁을 둘러싼 돌담들이 자연스럽게 도량으로 들어서게 한다. 일제강점기 때 만해 스님을 비롯한 효당 최범술, 변영태, 변영만, 김범부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의 '터'로 썼던 대양루가 도량 맨 앞쪽에 서있다. 적멸보궁에는 와불상

이 모셔져 있고 와불 너머로 사리탑이 있다.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 <무녀도>, <등신불>의 김동리(1913~1995)가 20대와 3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며 그의 대표작 <등신불>을 구상하고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김동리가 '등신불'을 썼던 안심료는 만해 스님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곳이기도 하다. 고찰들이 대부분 그렇듯 다솔사도 자장율사, 의상대사, 도선국사, 나옹선사 등 여러 선지식들이 머물다 갔다. 511년(지증왕 12)에 연기 스님이 영약사(靈藥寺)로 창건했다. 636년(선덕여왕 5)에 중수를 하고 다솔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뎠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은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뎠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뎠음(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은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견조기, 오추베개등 자매품다양)